

## 도로교통시설 30년 노하우 해외 수출

도일산업(주) 원주의 도일산업(주)(대표:강창호·박석재)은 토공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등을 목적으로 1982년에 설립된 전문건설업체다. 주요 사업으로 절, 성토부 응벽, 친환경 녹색 응벽,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제조 및 설치하고 있다. 30년간 이어온 자체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술·시공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해외사업으로 동남아(말레이시아) 및 일본 등에 도로안전시설공사



◇강창호 대표 ◇박석재 대표

및 제품 수출을 하고 있는 우수건설업체다. 제품인 정형응벽은 콘크리트 블록을 현장에서 조적·조립한 후 내부공간을 채움들로 충전, 일체화해 토압에 저항하는 응벽 공법이다.

## 자연과 함께하는 무공해 응벽 생산

제이에이치 춘천의 제이에이치(대표:정덕진·사진)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업체는 자연을 훼손해 이로움을 얻기보다는 자연 복원 및 무공해 공법을 활용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토낭응벽, 보강토응벽, 하이브리드 친환경 조명 등의 생산 및 시공에 주력하고 있다. 식생 가



능한 응벽, 자연적 재질의 패널 및 응벽인 EP응벽, 아이스톤응벽 등 모든 제품이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생산품인 식생토낭응벽은 모래주머니를 토목용 구조물로 사용하도록 특수섬유 토낭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영구 구조물 축조공법이다.

## 급경사 지반 안정 특허·기술 보유

(주)강산 원주의 (주)강산(대표:이미정·사진)은 사면 및 지반 보강 전문기업이다. 설계업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척박하고 열악한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 급경사 지반의 시공 경험에 의해 개발된 사면 관련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사면 및 지반안정공법을 더욱 발전시켜 한



층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으로는 쏘일네일 공법과 일체형 양카구조체(FNA양카) 등이 있다. 쏘일네일 공법 중 강화구식은 산사태, 급경사, 붕괴사면, 정토사면 굴착지반 및 차수공사 등에 활용되는 공법이다.

# 거두~만천 도로 내년 준공

춘천시 내부순환도로 조기 개통에 총력

【춘천】춘천 내부순환도로 중 마지막 미연결 구간인 거두리~만천리 도로 개설 공사가 내년 말 조기 준공된다.

춘천시는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등 내면, 동면 주민 편의와 개발 촉진을 위해 준공을 앞당기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잔여 사업비 75억원을 전액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준공 시기는 2017년이었다.

거두리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앞~오리골~만천리 애막골 연결 지점(2.1km)을 폭 35m의 6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다. 2.1km 구간 중 만천리~오리골 방향 1km는 2011년 노면 기초 공사 후 중단됐으나 지난 7월부터 반대편인 거두리~만천리 방향부터 공사에 다시 들어갔다. 거두리~만천리 구간은 당초 거두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맡기로 했으나 사업 백지화로 지연되어 오다 민선 6기 들어 재추진됐다.

내부 순환도로는 소양2교~호반순환로~거두리~만천리~장학리~소양5교~인형극장~소양2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24km 노선이

다. 2007년부터 미연결 구간인 거두리~만천리~장학리 개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내부순환도로 연결 이후 거두리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연결되는 세실로를 신촌리 방향으로 연장 개설해 내·외부 순환을 통한 교통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순환로의 개통 이후 신촌리 방향의 외부 순환도로 개설까지 이뤄지면 도심과 외곽이 빠르게 연결돼 주민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런기자

# 춘천 만천~거두 내년 말 개통

공기 7개월 앞당겨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

춘천 동내면 거두리~석사동~퇴계동~공지천~우두동~사능동~동면 장학리~만천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가 당초 완공시기보다 7개월 앞당겨 내년 말 완전 개통된다.

춘천시는 내부순환도로 중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거두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오리골~만천

리 춘천은누리교회 인근 삼거리(2.1km) 구간을 조기 개통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잔여 사업비 75억원을 전액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구간은 폭 35m로 양복 6차선이다.

이 구간 개통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으나 거두택지개발사업 백지화로 2011년 오리골~만천리 노면 기초공사 뒤 중단됐다.

이후 지난 7월 춘천시가 다시

착수, 당초 2017년 7월 완공을 목표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장학리, 만천리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예산을 집중 투자해 완공 시기를 내년 말로 7개월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이 구간이 마무리되면 거두리~석사동 스무숲사거리~호반순환로~공지천 사거리~소양2교~인형극장 사거리~여우고개~소양5교~장학교차로~만천리를 잇는 총 24

km의 내부순환도로가 완성된다.

춘천은 도심 진입로, 내부순환도로, 외곽도로가 연결되는 방사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거두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말기로 했으나 사업 백지화로 지연되다 민선 6기 들어 재추진했다”며 “신시가지 조성과 동면 주민 편의, 개발 촉진을 위해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 75억원을 내년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고 말했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